**한국 조직 내의 리더십 – 관계형**

“관계형”은 큰형님 같은 보스형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현실적 판단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높은 편입니다.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의 적응력도 높습니다. 때로는 기분파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공간이나 일과 시간 이후의 시간에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대한 감이 빠르며, 일보다 정치력 파악이 높은 편입니다. 술도 잘 마시면서 사람들과 좌중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 같은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형의 모습입니다.

*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한다.
* 정을 중시하고, 의리가 있다.
* 직원들의 최소 여가 시간은 빼앗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치밀한 계획보다는, 시행착오와 직관을 통해 일한다.
* 자신 관리와 업무 평가에 대해 엄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의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 코드가 바로 '관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홍보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리더십 코드는 영웅형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이 유형은 분명하고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이며, 동료 의식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합니다. 모든 기업 회장이 강조하는 “지속적인 성장”도 빠지지 않는 특성입니다.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 이미지에는 건장한 외모와 “럭비공 인사”라는 표현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 분의 용병술을 나타납니다.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은 정회장의 건장한 외모에서 풍겨나는 저돌적 특성이 부각된 것입니다. 동료의식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조되는 이미지 입니다. 리더에 대한 절대적이고 분명한 충성심까지도 의미합니다. 이것을 관계형 리더십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면 아랫사람들을 다 품고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결단 속에는 항상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랫사람이 충성을 다하더라도 그것은 자발적인 마음보다는 두려움에 의한 복종이기 쉽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삼성은 스마트하고 현대차는 저돌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것은 바로 두 기업이 가진 회장의 대중적 리더십과 연계된 이미지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정몽구 회장의 저돌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비자금 사건 이후 대중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거나 보육원 아기에게 젖병을 물려주는 모습 등과 같이 인간적인 '따뜻한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던져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중에게 자발적인 모습이 아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속죄로 보였기 때문에 저돌적이라는 정 회장의 기본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졌을 것입니다.